



전문간호사 교육의 전략에 관한 연구*

오가실¹⁾ · 김강미자²⁾ · 김금순³⁾ · 박지원⁴⁾ · 성명숙⁵⁾ · 오의금⁶⁾
이명하⁷⁾ · 정재원⁸⁾ · 조동숙⁹⁾ · 탁영란¹⁰⁾ · 류지인¹¹⁾

-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예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7)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9)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10)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Educational Issues and Strategies to Improve APN Education*

Oh, Kasil¹⁾ · Kim, Kang Mi Ja²⁾ · Kim, Keum Soon³⁾ · Park, Jee Won⁴⁾
Sung, Myung Sook⁵⁾ · Oh, Eui Geum⁶⁾ · Lee, Myung Ha⁷⁾ · Chung, Chae Weon⁸⁾
Cho, Dong Sook⁹⁾ · Tak, Young Ran¹⁰⁾ · Yoo, Jee In¹¹⁾

-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4)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5)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6)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7)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8)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9) Eulji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10)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Professor
11)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octoral Candidat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of graduate programs for an advanced practice nurse(APN) to recommend future directions of APN education. **Methods:** A total of 142 students enrolled in seven APN specialty programs, 67 professors who were involved in APN education, and nine nurse administrators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focus group interviews. **Results:** The current definition of APN was found not to be specific enough to represent expected roles of APN in regards to knowledge, attitudes, roles, and skills. Standard curricula employed regardless of the area of APN specialty, lack of qualified clinical

practice settings, as well as prepared instructors were found to be problematic. **Conclusion:** The following needs to be addressed: 1. redefining of APN roles, 2. tailoring specialty areas of APN, 3. consolidating educational programs, and 4. ensuring APN role models and faculty. Suggesting a CNS role in Korean APN, areas of APN should be rearranged to clarify their roles and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to meet the expectations and quality of APNs. It is necessary to ensure APN's employment in the health care system by laws and policies to perform advanced nursing roles.

Key words : Advanced practice nurse, Educational framework, Role

주요어 : 전문간호사, 교육제도, 역할

* 본 연구는 2006년도 한국간호과학회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함

* This study was funded by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투고일: 2007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Jee Wo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an 5 Wonchun-dong, Yeongtong-gu, Suwon 443-749, Korea

Tel: 82-31-219-7011 Fax: 82-31-219-7020 E-mail: pjwon@ajou.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칭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3년 10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04년 3월부터 전국 22개 교육기관에서 전문간호사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10월 현재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보건, 마취, 정신, 가정, 임상, 아동, 종양 등 13개 분야로 확대되었다.

전문간호사 과정은 해당 영역에서의 실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이므로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정규교육과정에서 수학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의 일반 대학원의 석사과정과는 달리 간호실무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 자원, 실습기관, 그리고 실습내용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5). 또한 실무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교수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실습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석사과정으로서 전문간호사 과정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Kim, 2005).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은 현재 간호대학원, 산업보건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임상대학원, 원격간호대학원 등 8개 유형이 있으며, 시행 초기에 교육내용, 교육방법등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평가원의 지침에 의거하여 전문간호사분야별, 교육기관별, 교육내용별, 교수방법별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Lee(2005)는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규정과 관련한 불명확한 법적체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교육하여 활용하는 전담인력과의 명칭 및 자격 혼동, 전문간호사가 수행한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간호수가 책정의 미비, 입학기준, 교과과정 및 교수요원의 부족, 전문간호사 분류체계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6년에는 전문간호사 과정의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는 무엇이며 현재 정의된 역할의 타당성,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로 되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재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분

석함으로써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차후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전문간호사의 정의, 역할, 분야에 대한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의 의견을 조사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의 반응을 파악한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조사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 교수, 간호행정이 집단별로 세 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전문간호사 교육제도에 대한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들의 인식을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 학생

전문간호사 대학원과정에서 이론과 실습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2006년 4월자로 전문간호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전국 35개 교육기관 중 4, 5학기 재학생이 있는 7개 분야(감염, 노인, 응급, 정신, 중환자, 종양, 호스피스)가 개설된 22개 대학의 대학원생 전수이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정원은 722명이나 2006년 1학기에 실제 등록된 학생수는 398명이었으며 휴학, 미등록 등으로 인해 실제 연구대상으로 파악된 4, 5학기 재학생은 359명이었다. 이 중 본 연구의 설문

에 참여한 학생은 148명(41.2%)이었다.

● 교수

설문지 조사 집단은 2006년 현재 전문간호사과정이 개설된 35개 대학의 과정 담당교수 103명이었고, 포커스 그룹면담 집단은 간호학 전공교수 중 전공영역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15명이었다.

● 간호행정가

3차 의료기관 중 편의표출에 의하여 선정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내 9개 기관의 간호부서장 9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연구 도구

설문지 이외에도 교수와 간호행정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 및 제안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원들이 세 차례의 토의를 통해 개발하고 내용타당도를 거친 구조화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면담용 프로토콜 및 지침이다.

● 설문지

학생용 설문지는 15개 문항(전문간호사 정의 및 역할, 이론 및 실습교과목, 프리셉터, 과정 이수 후 기대 등)으로 구성되었고, 교수용 설문지는 10문항(전문간호사 정의 및 역할, 전문간호사 분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호행정가용 설문지는 8문항(전문간호사 정의 및 역할, 전문간호사 분야, 전문간호사 유사인력, 채용계획 등)으로 구성되었다.

● 면담 지침

교수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 및 제안사항 등에 대해 심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작성된 9개 항목(표준 교과과정, 이론 시간, 이론교과목의 구성, 임상실습시간, 임상실습의 질, 교수와 프리셉터의 개발 및 준비, 실습교과목 운영의 어려운 점, 이들 내용에 대한 개선점 및 해결방안)의 포커스 그룹 면담용 프로토콜을 이용하였고, 간호행정가와의 면담을 위해서는 7개 항목(전문간호사 제도 필요성, 현 제도의 간호발전에 대한 기여도,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 전문간호사 분야, 전문간호사 채용계획, 활용중인 유사 인력 현황, 전문간호사와 유사 인력의 역할 차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의 면담지침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이었다.

● 학생

대학원 과정 담당 책임교수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개별 배부, 회수하였다. 359명 전수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실제 회수된 자료는 17개 대학에서 148부(41.2%)이었고 이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142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학생 142명의 전공영역은 7개 분야 중 노인(35.2%)과 중환자(28.2%)과정이 많았고 근무부서는 병원이 64.1%로 지역사회 근무(33.8%)보다 많았으며 임상경력은 평균 11.3년이었다.

● 교수

설문지는 전문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수에게 우편으로 배부, 회수하였으며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과정담당 책임교수에게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실제 회수된 자료는 22개 대학에서 67부(65.0%)이었으며, 교수 67명의 연령층은 50세 이하(35명, 52.2%)와 50세 이상(31명, 46.3%)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담당 전공과목은 성인이 47.8%로 가장 많았고 담당전문과정 분야는 노인(28.4%)과 중환자(14.9%), 그리고 중앙, 정신, 응급 분야가 각 10.4% 순으로 많았다. 교수 15명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면담은 2006년 5월(7명)과 7월(8명)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면담 좌장은 연구팀원 중에서 맡아 진행하였고 평균 면담 소요시간은 2시간이었다.

● 간호행정가

간호행정가와의 면담은 연구원이 전화로 약속을 한 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40분이었고 면담 내용은 응답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설문지에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여 완성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전수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양적 자료뿐 아니라 질적 자료 그리고 녹음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양적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주관식 질문에 대한 질적 자료는 응답내용을 모두 나열한 후 유사 유목별로 분류하여 진술 빈도를 표기하였다.

교수와 간호행정을 대상으로 수집한 면담 자료는 녹음된 토의 내용을 필사한 후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정리하고 문항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학생, 교수, 간호행정을 구분하여 세 개의 과제로 수행하였으나 결과는 연구목적에 따라 세 집단의 반응을 비교 서술하였다(과제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한국간호과학회 2006년도 정책연구보고서” 참조).

전문간호사의 정의, 역할, 분야

● 전문간호사 정의의 구체성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 정의에 대한 대상자의 공통된 의견은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상급수준 또는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자율성'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교수와 간호행정가들도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해당분야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 전문간호사 역할 중요도

한국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전문간호 실무제공자, 교육자, 지도자, 연구자, 자문가, 협동자의 6개 역할에 대해서 대상 집단 모두에서 전문간호실무 제공자를 제일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교육자이었다. 지도자, 연구자, 자문가, 협동자 역할에 대한 의견은 대상집단에 따라 엇갈리고 있었다<Table 1>.

●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간호사 분야

학생을 제외한 교수와 간호행정가를 대상으로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했을 때<Table 2>, 교수들은 현재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중 노인(92.5%)분야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 반면 산업(64.2%), 보건(56.7%), 임상(29.9%)분야

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별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간호행정가에서도 임상(55.6%), 산업(66.7%) 분야의 필요성은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교수와 달리 감염, 응급, 정신, 중환자, 종양, 아동 등 병원의 관련 분야에 각각 88.9%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교수와 간호행정가 모두 전문간호사 분야의 분류 기준이 없으며 대상자와 역할에서 중복되고 영역이 모호한 분야가 있어 앞으로 전문간호사 분야 분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교육 과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준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Table 3>, 중환자(92.3%), 호스피스(85.7%), 정신(83.3%) 분야가 노인(60.0%), 종양(71.4%) 분야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와 간호행정가의 반응을 분석했을 때 일부 교수들에서는 교육과정이 대체로 무난하긴 하나 각 분야별로 특성화하여 차별성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고, 간호행정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교육과정이 상급수준의 지식과 기술에 부합되는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부과정과 수준의 차이가 없어 전문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역량에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Table 1> Perceived rank of APN roles by students, professors, nurse administrators

Subjects(n)	Roles	Advanced nursing practitioner	Educator	Leader	Researcher	Consultant	Cooperator
Student(142)		1	2	3	5	4	6
Professor(67)		1	2	5	4	6	3
Nurse administrator(9)		1	2	6	5	4	3

APN : Advanced Practice Nurse

<Table 2> Professors and nurse administrators reaction on the current clinical specialties of APN

Field	Professor(n=67)*		Nurse administrator*(n=9)	
	Need n(%)	Not-Need n(%)	Need n(%)	Not-Need n(%)
Home health	56(83.6)	7(10.4)	7(77.8)	1(11.1)
Infection control	55(82.1)	5(7.5)	8(88.9)	0
Gerontology	62(92.5)	3(4.5)	7(77.8)	1(11.1)
Anesthesia	51(76.1)	10(14.9)	7(77.8)	1(11.1)
Comm. health	38(56.7)	21(31.3)	7(77.8)	1(11.1)
Industry nursing	43(64.2)	16(23.9)	6(66.7)	2(22.2)
Emergency care	54(80.6)	8(11.9)	8(88.9)	0
Mental health care	59(88.1)	3(4.5)	8(88.9)	0
Hospice care	49(73.1)	11(16.4)	7(77.8)	1(11.1)
Critical care	55(82.1)	7(10.4)	8(88.9)	0
Oncology nursing	52(77.6)	9(13.4)	8(88.9)	0
Clinical nursing	20(29.9)	34(50.7)	5(55.6)	3(33.3)
Child health	53(79.1)	7(10.4)	8(88.9)	0

* No reponses were excluded

<Table 3>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 professor by field

Field	Curriculum		Professor		
	Satisfaction n(%)	Not-satisfaction n(%)	Nursing professor	Medical professor	Field manager
Infection control(9)	7(77.8)	2(22.2)	3.00±.71	2.50±.53	3.25±.71
Gerontology(50)	30(60.0)	20(40.0)	3.15±.58	2.79±.67	2.72±.62
Emergency care(10)	8(80.0)	2(20.0)	3.70±.48	3.10±.57	3.10±.57
Mental health care(12)	10(83.3)	2(16.7)	3.60±.52	2.80±.63	3.08±.51
Critical care(39)	36(92.3)	3(7.7)	3.34±.53	2.97±.64	3.26±.72
Oncology nursing(14)	10(71.4)	4(28.6)	3.31±.48	2.86±.53	2.93±.47
Hospice care(7)	6(85.7)	1(14.3)	3.14±.69	2.43±.53	2.71±.49
Total(141)	107(75.9)	34(24.1)	3.28±.58	2.84±.63	2.98±.66

● 이론교과목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필수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인지 및 역할수행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한 결과<Table 4>, 간호연구(96.5%), 병태생리(96.5%), 임상약리(98.6%), 전문간호사 역할 및 정책(96.5%)은 모두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과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과목은 전문간호사 역할 및 정책(69.7%), 병태생리(58.9%) 그리고 임상약리(50.4%)과목 이었다. 간호이론은 5개 공통과목 중 간호연구와 함께 필요성이 가장 낮게 인지되었다.

교수와 간호행정가들은 이론 교과목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보여 공통과목이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간호이론과목이 모든 전문간호사가 학습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전문분야의 실무에 적합한 과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분야별로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중요하고 분야의 특성에도 맞는 과목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Table 5>.

● 임상실습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실습시간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실습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찰위주의 실습에 그치지 말고 실무위주의 실습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수

<Table 4> Student's reactions about need and usefulness by the courses subjects

(n=142)

Courses	Need		Usefulness for practice*	
	Need n(%)	Not-Need n(%)	Useful n(%)	Not-useful n(%)
Nursing theory	118(83.1)	22(16.9)	52(36.6)	90(63.4)
Nursing research	137(96.5)	5(3.5)	63(44.7)	78(55.3)
Patho-physiology	137(96.5)	5(3.5)	83(58.9)	58(41.1)
Clinical pharmacology	140(98.6)	2(1.4)	71(50.4)	70(49.6)
APN role and policy for APN	137(96.5)	5(3.5)	99(69.7)	43(30.3)

* No responses were excluded

<Table 5> Professors and nurse administrator's opinion about APN's curriculums

Main area	Professor	Nurse administrator
Curricular	- Differentiate core courses of APN from graduate school	- Need advanced nursing knowledge - No differences between expert nurse and APN - No differences between BSN and APN
Theory and practice	- Variety of core courses among specialty areas - Uniform curriculum is not helpful for these students who have had various clinical experiences - Certain level of educational outcomes can not see expected for the readiness of the schools	- Theory focused lecture for not enough practice settings - Content of APN practice is not clear enough - Gap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Levels of practice settings can not meet for the APN education
Professor readiness	- Physicians' teaching is not satisfactory for their lack of understand APNs	- Professors are not certified to APN
Preceptor readiness	- Not enough preceptors - Lack of collaboration between physicians and nurses on the units - Not clear roles between PAs and APNs	- No role models of APN - No orientation to APN among physicians that lead to careless clinical instruction

들은 현재 300시간인 임상실습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간호행정가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실습시간이 많아 재직간호사의 경우 과정을 이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의 임상능력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실습시간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대되는 역할수행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세 대상자 집단 각기의 이해범위 내에서 응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실습기관에 대하여 학생의 경우 90.5%가 만족하다고 하였으나 교수들은 실습병원의 치료적 환경과 환자 양상, 의료진과 의료장비 보유 현황 등이 전문간호사의 실습기관으로는 차이가 있어 실습 경험의 편차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간호행정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실습기관의 부적합한 여건으로 이론 위주의 강의를 실시하고 있어 실무와 동떨어진 교육을 실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습기관간의 수준차이가 매우 큰 것을 염려하였고, 협약조건을 만족하는 실습기관의 절대적 부족, 여건이 좋은 병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 교수진

실습지도 프리셉터 현황을 조사했을 때 간호학 교수가 지도한다는 응답은 25.2%이지만 간호사(66.9%)와 실습기관의 책임자(68.5%), 의사(52.0%)가 더 많은 프리셉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셉터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프리셉터가 교과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84.0%), 교과목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다(75.0%)고 인지하고 있었다<Table 6>.

이론과 실습을 담당한 교수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최대 4점으로 측정했을 때<Table 3>,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의사(2.43~3.10)나 기관책임자(2.71~3.26)에 비해 간호학교수(3.00~3.70)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실제로 교수들이 준비만 되면 간호학교수가 프리셉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수와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간호행정가들은 전문간호사가 없는 병원에서 실습할 경우 일

반 경력간호사가 실습을 지도하게 되는 실정이므로 전문간호사의 역할 습득에 한계가 있으며, 의사에게 실습을 의뢰할 경우 전문간호사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의사양성에 필요한 내용을 실습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

● 채용계획, 수요창출

간호행정가들 모두가 간호사의 역할확대와 간호의 전문직향상을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행정가에게 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의 여부에 대해서는 9명중 4명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9개 병원 모두 현재 전문간호사 유사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사인력의 명칭은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전임간호사, 전문코디네이터, 간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고 병원에 따라 적은 곳은 4종에서 많게는 32종까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법적으로 인정된 분야는 가정과 중양, 감염관리 분야뿐이다. 전문간호사 유사인력은 주로 진단분야별로 당뇨, 장루, 폐암, 류마티스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장기이식, 정맥주사, 헌혈, 채혈과 같은 기술별로 분류된 곳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대상 집단 모두는 이 같이 난립된 인력구조가 앞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유사자격 전문간호사를 채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 제도적 뒷받침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들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전문간호사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을 때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술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지위, 직책, 대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의 지위, 분야, 직책 등 희망하는 바를 기술하게 했을 때 역할로는 일반간호사와 확실히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임상실무 전문간호사(74명) 및 조정자(27명), 교육자(25명)를 기대하였고, 직책은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대우를 받는 전문간호사(44명) 또는 주임 간호사 이상의 책임자(21명)를 기대하였다. 희망하는 근무지는 전공영역과 관련된 병원 내 부서(16명) 또는 지역사회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14명)을 원하였고, 근무조건으로 외래나 상담전담(11명)을 희망하고 있었고, 수당으로 전문 간호사 특별수당(26명)

<Table 6> Student's reactive about preceptor

Characteristics	Category	n(%)
Type of preceptor*	Nursing professor	32(25.2)
	Nurse	85(66.9)
	Physicians	66(52.0)
	Field	87(68.5)
Cognition for APN course	Recognize	105(84.0)
	Not-recognize	20(16.0)
	Total	125(100.0)
Readiness of APN course	Enough	99(75.0)
	Not-enough	33(25.0)
	Total	132(100.0)

* multiple choice available; % by 127 respondent

을 지급해 주길 원하였다.

논 의

전문간호사의 정의와 역할, 분야

대한간호협회의 정의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들 모두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자율성’ 등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면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중 이론 00시간, 실습 00시간을 이수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실무 간호인 약물처방, 간호진단, 간호처방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에 대한 이견도 있어서, 학과과정에서 이미 간호는 전문직으로, 그리고 전문직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까지 치른 후에도 ‘전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전문간호사의 명칭으로 인해 일반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전문직 간호사]의 ‘전문’과 차별화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뜻하는 명칭을 찾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비록 상급간호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Advanced’라는 형용사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차별하여 정의하는 것 같이(Atkins & Ersser, 2000) 상급 전문간호사, 상급 실무 간호사, 분야별 전문간호사와 같은 명칭이 오히려 일반간호사의 전문성과 상호배타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간호사의 역할에서 학생, 교수, 간호행정이 모두 전문가적 간호실무 제공자와 교육자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인지함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자문가를 비롯하여 기타 역할에 대해서는 대상 집단에 따라, 학생의 경우에는 전문영역별로도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상 집단에 따라 역할의 중요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역할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전문간호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간호계의 일치된 점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6가지 역할이 전문간호사에게 모두 중요한 역할이라면 환자에 초점을 둔 건강지향 인력인 NP보다는 간호조직이나 간호 전반의 발전을 위해 기능하는 CNS의 역할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13개 전문간호사 분야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로 되는가에 대해선 노인분야의 필요성은 높게 인지한 반면 산업,

보건 분야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전문간호사 분야의 분류 체계 기준이 모호하고 역할과 영역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어 앞으로 전문간호사 분야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선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를 염두하여 현장에서 CNS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차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Woods, 1997). 동시에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이들 6개 핵심 역할을 차별화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할에 따른 직무기술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것이 교육콘텐츠에 반영되도록 교과과정 및 내용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Furlong & Smith, 2005).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적합성

교육과정은 각 전공별 특성을 살려 차별성이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대상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간호행정가들이 소비자적 입장에서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용성 있는 지식과 기술을 깊이있게 교육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결과는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간호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합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여 협의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4). 전공과목도 분야별로 전문간호사의 전문화된 기능을 고려한, 분야에 맞는 특성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이며(Bellack, Graber, O'Neil, Musham, & Lancaster, 1999), 특히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분야별로 융통성 있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300시간인 임상실습시간이 부족하다는 교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전체 학점 시간에서 실습이 차지하는 학점 및 시간은 총 33학점(645시간)중 임상실습 10학점(300시간)으로 절대적인 시간에서 46.5%를 차지하여 미국 전문간호사 교육과정(45학점에 500시간 실습)에 비해 적은 비율은 아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이론과 실습을 하게 하려면 학점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습기관은 시설, 설비를 위시한 전반적 수준의 차이가 많고 좋은 실습기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일정수준의 실습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실습방법 또한 관찰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론과 실습을 담당할 교수진 및 프리셉터는 대체로 간호

학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의사나 간호사, 기관책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간호학교수가 프리셉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간호교육기관의 교수의 수나 자격으로 볼 때 전문간호사의 실습까지 담당할 수 있을만한 여유는 없다고 보여 지므로 프리셉터의 준비를 강화하여 그 역할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며 전국적으로 분야별 교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호학 교수 이외의 프리셉터에 대해선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의 및 실습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전문간호사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없는 다양한 프리셉터가 실습의 질을 결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의사가 프리셉터를 할 경우 전문간호사를 의사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수준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어 하루 빨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 요원을 양성하여 좋은 역할모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간호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

자격증을 가진 전문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간호행정가가 상당 수 있었다. 이미 유사인력을 자체적으로 훈련하여 활용하고 있었고 그 종류는 4종에서 32종에 이르기 까지 병원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개별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양산된 유사인력을 재정비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간호사를 채용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며(Cho, Lee, Kim, Jang, Lee, & Kim, 2002), 전문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배치기준을 의무조항으로 삽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법으로는 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직위, 급여, 보상 차등화가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다면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활성화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역할한계, 의무고용, 수가와 관련된 법의 제도화, 독립적 업무권한, 전문간호사에 대한 홍보, 전문간호사 배치기준과 보상체계, 수요공급 균형을 위한 장기적인 수급계획, 그리고 전문간호사 질 관리 등 정책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분야에 대한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기대되는 전문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전문간호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실습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는 4, 5학기생 142명과 간호학 교수 67명, 3차 의료기관의 간호행정가 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또는 포커스 그룹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시한 전문간호사 정의에 대해선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 모두 ‘상급수준 또는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자율성’ 등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한국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전문간호 실무제공자, 교육자, 지도자, 연구자, 자문가, 협동자의 6개 역할에 대해선 대상 집단 모두 전문간호실무 제공자를 제일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간호사 분야로는 교수와 간호행정가 모두 노인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전문간호사 분야의 분류기준이 없고 대상자와 역할이 중복되어 앞으로 전문간호사 분야 분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생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중환자, 호스피스, 정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필수교과목에 대해선 모든 과목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간호이론은 5개 공통과목 중 간호연구와 함께 필요성이 가장 낮게 인지되었다. 그러나 교수와 간호행정가들은 공통과목이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편 임상실습시간에 대해선 학생들과 간호행정가는 많다는 의견인 반면 교수들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습기관에 대해선 학생은 대체로 만족하다고 하였으나 교수와 간호행정가들은 실습기관의 질적 차이 및 지역적 편중에 따른 실습 기관의 확보 및 실습경험의 편차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간호행정가들 모두 전문간호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문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9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유사인력의 명칭은 4종에서 32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생, 교수, 간호행정가들 모두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술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간호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전문간호사의 종류 및 분야를 간호학의 학문적, 실무적 논리와 한국간호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

둘째,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일반간호사의 역할과 차별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전문분야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개별화 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간호사의 독립적 역할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배치 기준을 위한 법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간호협회를 비롯하여 간호 단체가 전문간호사교육의 향상을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여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 한다.

다섯째, 자격증을 가진 전문간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재창조함으로써 사회와 타 건강관리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 받도록 역할 수행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tkins, S., & Ersser, S. J. (2000). Education for advanced nursing practice: an evolving framework. *Int J Nurs Stud*, 37, 523-533.
- Bellack, J. P., Graber, D. R., O'Neil, E. H., Musham, C., & Lancaster, C. (1999). Curriculum trends in nurse practitioner programs: Current and ideal. *J Prof Nurs*, 15(1), 15-27.
- Cho, W. J., Lee, T. W., Kim, S. Y. J., Jang, S. B., Lee, W. H., & Kim, K. S. (2002). Study for curriculum development for advanced nurse practitioner program. *J Korean Acad Nurs*, 32(6), 917-928.
- Furlong, E., & Smith, R. (2005). Advanced nursing practice: Policy, education and role development. *J Clin Nurs*, 14, 1059-1066.
- Kim, C. J. (2005). Introduction and meaning of advanced practice nurse program. *The Korean Nurse*, 44(5), 14-16.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4, Oct). *Workshop for standard curriculum for advanced practice nurse*. Paper presented at KABON Workshop, Seoul, Korea.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5). Advanced practice nurse program A to Z. *The Korean Nurse*, 44(5), 34-39.
- Lee, K. J. (2005). A problem and future direction about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The Korean Nurse*, 44(5), 17-21.
- Woods, L. P. (1997). Conceptualizing advanced nursing practice: Curriculum issues to consider in the educational prepar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the UK. *J Adv Nurs*, 25, 820-828.